10.15686/fkl.2025..64.49 OPEN ACCESS

2000년대 소설의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 젠더화된 속물성

-정이현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김예니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수

목차

1 ‘IMF 외환위기’와 속물성의 일반화
2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 여성의 자본화
3 젠더화된 속물성과 또 다른 여성 타자의 발견
4 지워진 여성에서 교차하는 여성들로!

국문초록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생존 경쟁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경향을 강화했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인의 성차를 제거하고 자기 경영하는 원자적 개인을 강조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2000년대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은 차이를 드러내는데 김경욱의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은 젠더 권력 구조를 가린 채 추상적 공평함만을 강조하는 반면, 정이현의 『낭만적 사회와 사회』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본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정이현은 신자유주의 에토스에 따른 여성의 자본화라는 현상을 통해 '여성성'을 연기하지 않고서는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편입하기 어려운 현실과 여성성의 자본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임을 역설한다. 이처럼 여성혐오적 공격이 거세지는 조건에서 2000년대 속물성은 여성화되어 재현되는 조건에서 당대의 위기가 성차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문학은 또 다른 타자의 발견과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대안적 서사를 모색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기존 타자성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여성의 독자적 실천으로 교차하는 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발견을 들 수 있다.

국문핵심어: 속물성, 2000년대 여성문학, 정이현, 타자성, 백래시

1 'IMF 외환위기'와 속물성의 일반화

2000년대를 1990년대와 구별하는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단절의 경험이다. 2000년대는 1997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질서가 재편되고,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인간관까지 변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를 경제적 논리로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인간형을 강요했다. 노동자 정체성은 '1인 기업가', '기업가적 주체', '자기계발적 주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고 인간은 '인적 자원'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재정의되었다.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개인'은 더는 노동하는 인간

이 아니라 '자기 경영'하는 기업가적 주체가 되어야 했다. '나'라는 육체적 존재에 대한 자기 경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노동력으로 자신을 경영하는 합리적 인간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개인'은 원자적 개인이다. 개인은 서로 다른 계급적/문화적/성적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신자유주의는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 사회에 대한 불안을 무기로 이를 은폐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란 기업가적 주체가 합리적 숙고를 거쳐 개인적인 행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이런 과정이 개인의 자율에 따라 사적으로 이뤄졌다는 믿음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1]

1990년대 경제적·문화적 부흥과 영페미니스트의 등장으로 젠더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2000년대는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생존 자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급증했다. 경제 위기 담론은 사회 비판과 개혁의 모든 논쟁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었고 199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인 성주류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의 공간을 축소하며 이로 인한 대중적 호소력이 약화 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IMF 이후 '고개 숙인 아버지' 담론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부장이 홀로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2]에서 가부장적 경제 모델에 대한 상상적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가부장적 노스탤지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결합하여 여성부/여성가족부로 표상되는 여성운동의 세력화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특히, '젊은 여성'은 '가부장의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적대적 존재로 표적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유예된 미래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역차별'론과 함께 '된장녀'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여성혐오 문화에 대한 정당성과 대중성을 확보해나가는 시작점이 되었다. 2006년 유행했던 '된장녀' 게시글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비하적 젠더 호명의 시작으로 당대 '소비주의'와 '허영'의 표상으로서 여성을 그려낸다. '된장녀'로 표상된 21세기의 여대생을 향한 공공연한 비난은 그들을 '된장'이라 명명한 이들의 불안과 공포가

1 엄혜진,「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담론에 나타난 여성주체성과 젠더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0-11쪽.

2 장경섭,『압축된 근대성의 논리』, 문학사상, 2023, 197-241쪽.

분노로 응축되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3] 이렇듯 여성 혐오적 정서의 시작을 알리는 '된장녀'의 등장은 2000년대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징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 여성은 왜 '된장녀'로 호명되며 속물성의 존재로 대표되었는가. 어느 시대에나 속물적 인간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심을 향한 욕망과 주변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속물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고[4] 사회의 위계가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개인은 언제든지 속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기에[5] 근대 사회에서 속물적 인간은 늘 존재했다. 특히, 공동체의 위기와 불안이 증가하면 속물성의 위험은 강화된다. 하지만 속물성에 대한 비판 역시 늘 수반되었다. 욕망 추구의 허망함과 타자를 향한 윤리의식, 그리고 세속적 가치와 타협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들은 문학을 통해 재현되어 당대의 윤리성을 구성했다.[6] 하지만 생존전략으로서 중산층의식과 속물성에 대한 문학적 재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담론은 "이기적 인간,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에 어떤 문제제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위기담론 앞에서 공포와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속물성의 위험은 더 커졌지만, 이전 시기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속물성이 합리적 선택으로 개념화되고, 경쟁을 통한 중심으로의 편입이 사회적 윤리로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공론장이 축소된 것이다.[7] 특히, 계층 상승을 향한 욕망과 배제의 공포는 인간적 욕망으로 당연시되었고 속물성은 보편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일반화되었다.

이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점점 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자기 경영

---

3 김학준, 『보통 일베의 시대-'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월의봄, 2022, 160쪽.

4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557-589쪽.

5 김은하, 「개발기 모랄의 위기 서사와 건전한 속물의 탄생: 김승옥의 대중적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33쪽.

6 이선미, 「속물(지배)사회, 허위의식, 말떼의 총질-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허위의식 서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94호, 한국문학회, 2023, 267-296쪽. 박완서는 1970-80년대 세속적이고 생존주의적 삶의 태도가 중산층을 향한 욕망, 중산층의식으로 나타나는 세태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당대의 허위의식, 현대인의 속물성을 철저하게 파헤쳤다.

7 엄혜진, 앞의 글, 23-32쪽.

능력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논리에 따라, 개인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1990년대 여성 문학이 1980년대라는 대타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의 내면성을 재현하면서 이전 시기의 거대서사, 변혁 전망의 성맹성을 비판하는 위반의 상상력을 보여줬다면, 2000년대의 '개인'은 개별적인 차이를 정치화할 수 없도록 탈성화 되고 탈계급화 된 존재로 변화했다. 이에 여성(성)은 자본주의에 맞춘 근대적 남성성을 기준으로 '자본화'를 생존전략으로 선택한다. 남성을 인간화하기보다 여성을 자본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생존전략은 경제적/젠더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8] 이런 변화된 조건에서 2000년대 여성 문학의 과소라는 평가는 당대 인간학에 대한 개념적 침묵과 원자적 개인에 기반한 탈맥락적이고 추상적인 타자성으로 성급하게 결론지으면서 증폭되고 있는 젠더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봉합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학이 사회와 유지하던 긴장된 길항작용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당대 사회에 대한 문학적 가능성을 모색했을 터, 한국문학은 당대 지배적인 담론에 맞서 몰성적인 개인, 탈계급적인 개인을 넘어서는 서사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나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남성 부양규범의 핵가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이 소수자, 특히 여성을 향하고 여성혐오를 자양분 삼아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는 2000년대적 상황에서 문학은 어떤 여성 서사, 어떤 여성성의 재현을 실험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야 한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극복을 위한 서사적 상상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부터 문학의 중요한 주제였던 중산층의식의 달라진 양상에 대해 2000년대 여성 문학은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속물적 인간형의 계급/계층적 조건은 다양하지만 스스로 중산층으로 정체화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인물들은 당대 사회의 속물성의 기준으로 문학 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와 '된장녀'와 같은 여성혐오적 문화가 확산되는 2000년대적 상황에서 속물적 여성(성)을 재현한 정이현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김경욱의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2004)의 여성 인물과 비교하면서 2000년대 여성이 처한 조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이현의 초기작품을 통해 대학생, 주부,

8 위의 글, 171쪽.

지식인, 전문직 여성으로 등장한 중산층 여성이 2000년대에는 여성 작가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고 여성 인물의 중심을 향한 욕망, 혹은 배제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이현을 통해 2000년대 여성작가의 문학적 실천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려 한다.[9] 다음으로 2000년대 소설 속 타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원자화된 개인들의 한계와 다양한 타자성의 탐색, 그리고 성차가 소거된 타자성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의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외부를 상상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안전에 대한 욕망으로 자기방어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생존전략 게임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립되며, 타자와의 연결이 어려운 조건에서 여성의 고립과 소통의 노력이 갖는 의미를 당대 소설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2000년대 여성작가의 작품에서 속물성은 어떻게 극복 가능한지, 소외된 타자는 어떻게 발견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여성 서사의 방향성과 그 속에 나타난 탐색과 저항의 양상을 분석하여 여성 문학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2000년대 여성문학은 1990년대와의 연결성 속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1980년대 후반,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이론화와 문학적 실천을 도모했던 흐름이 있었고[10], 90년대에도 페미니즘에 대항하는 반동적 흐름(Backlash)이 존재했지만 1990년대를 여성 문학의 전성기라 평가하는 이유는 여성 문학이 담론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라는 거대서사에서 삭제된 '여성'의 빈자리를 비판한 여성 서사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그리고 내면성이라는 문학적 실천은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교섭하며 경쟁을 벌였다.[11] 한편, 2000년대 여

9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 밖』 제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40-61쪽.

10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제51호, 상허학회, 2017, 16쪽.

11 김영찬, 「'90년대'는 없다-하나의 시론(時論), '1990년대'를 읽는 코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9-28쪽.
김예니, 「199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재현의 문제: 장선우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중심으로」, 『반영과 재현』 제2호, 현대영상문화연구소, 2021, 5-28쪽.
이소영, 「1990년대 포르노그래피 장르화를 둘러싼 페미니스트들의 정동과 그 의미」, 『현

성문학은 1990년대에 두드러졌던 여성의 내면성이 희미해지면서 '여성'이라는 자의식보다, '빈곤'과 '배제'의 공포, 개인의 고립감과 상실감이라는 경험에 주목하면서 탈근대, 탈주체, 탈중심, 혼종성, 위반, 유머와 같은 특징들을 보였다.[12] 특히, 복수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차이와 타자성으로 이분법적 여성성 담론을 극복하려는 비평적 시도는 당시 2000년대 젊은 작가들의 실천을 읽어내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13] 하지만 복수의 정체성 속에서 성차와 여성 경험, 여성의 현실이 소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성의 원리와 보편성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당대 현실과 여성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당대 보편의 경험을 어떻게 여성의 시선과 언어로 풀어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 여성의 자본화

2002년,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는 남녀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해부하며 대중적 성공을 얻었다. 사랑을 둘러싼 정념과 열정도 객관화하여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철학적으로 사유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은 두 사람만의 유일하고 내밀한 감정에 기반한 운명이라는 관습을 벗어나 탈낭만화된다. 그리고 2004년에 출판된 김경욱의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은 한국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 해도 무방할 만큼 남성 작가의 시선에서 그려낸 2000년대 탈낭만화된 사랑법에 대한 서사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 수컷들이 암컷들보다 잘생긴 것은 순전히 암컷을 유혹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유혹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혹 앞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언어 때문이다. 사랑을 꼭 말로 표현

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101-132쪽.

12 김양선, 앞의 글, 41쪽.

13 김형중, 「성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비평』 제132호, 2006, 254쪽.

해야 돼? 눈빛을 보면 몰라? 말을 안 하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 상투적인 대화다. 사랑의 상투성은 많은 부분 관습과 제도에서 비롯된다. 사회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랑의 방식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으면 유혹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눈빛의 신화는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 잘못하다간 치한으로 몰리는 수가 있다. 차(커피)나 한 잔 할까요? 그리하여 이 상투적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직 대체재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4]

작품 속 남자는 유혹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언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연인 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대화를 예로 들며,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이러한 상투적인 대화는 그 자체의 상투성으로 인해 관습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모든 연애는 상투적이며 당대의 관습과 제도에 기안한다는 화자의 분석은 남녀가 언어를 매개로 활용하기에 평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상투성이 기대고 있는 관습과 제도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은 대체재가 없기에 상투적인 유혹의 언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물론, 제도와 관습을 벗어난 유혹의 눈빛은 치한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덧붙인다. 작품 속 남자는 원자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다. 그는 상투성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관습과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 젠더 개념에 대한 공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눈빛의 신화'가 위험해진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이전의 남성중심적 관습과 제도 아래에서 남녀가 공평한 조건에 서지 못했다는 인식 대신, 이제는 남녀가 평등한 조건에서 남성의 유혹과 눈빛이 가해자로 몰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해가 나타난다. 이는 남성이 뜻하지 않게 '가해자로 몰리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한 여성의 문제 제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주 나

14 김경욱,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 『2005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현대문학, 2004, 101쪽. 앞으로 인용 시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타나는 남성들의 공포와 우려가 전제되는 것이다. 안전한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든 언어가 발화된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고, 화자가 말하는 상투적이어서 안전한 '차(커피)나 한 잔 할까요?'라는 유혹의 언어 역시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맥락으로 전달되기에 위험할 수 있음에도 화자는 이런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작품 속에 전제된 남녀는 연애라는 사적 경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이다.

> 나 명예퇴직 신청할까봐. 왜?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분위기가 살벌해. 지금 하는 일 좋아하잖아. 마지못해 다닌 지 꽤 됐어. 숫자라면 이젠 지긋지긋해. 그만두면 뭘 할 건데? 당장은 푹 쉬고 싶은 생각뿐이야. 유니폼은 어떻게 하고? 이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치열교정기를 끼고 나타났을 때도 그런 기분이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결정적인 반전을 미리 알아버린 듯한.(118)

결혼한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에게 남성 화자는 성적 매력을 잃는다. 그녀의 성적 매력은 은행의 유니폼으로 패티쉬화 되어 있었는데 유니폼을 입지 않은 여성은 더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작중 화자는 그녀가 왜 직장을 그만두고 왜 꿈꾸던 사회생활을 하기 싫어하는지 묻기보다 아내의 매력 자본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한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내, 더는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아내를 향한 아쉬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부부의 소통은 불가능해 보인다. 2000년대 남성 역시 여성의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기존 남성부양 모델의 불가능성을 반영한 것임에도 작품 속 화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패티쉬로 그려내면서 매력 자본을 잃은 여성, 자본화할 수 없는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사고한다. 이는 경제위기 담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족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에토스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까지 통제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관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여성을 자본화하는 현상을 은폐한다. 작중 화자는 아내와 헤어진 후에야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자각

한다. 아내라는 존재를 탈맥락화하여 성적 코드로 대체함으로써 대상을 비인간화하고 물화한 것이다.[15] 대상을 탈맥락화하여 하나의 기호, 성적 코드로 아내라는 존재를 대체함으로써 대상을 비인간화, 물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성적 매력, 매력 자본 그 자체로 물화되어 대상화되었다.

> 32.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현대 이전 결혼이라는 계약의 기본조건은 성적 매력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이었다. 현대에도 열렬히 소비되는 수많은 낭만적 서사들은 힘주어 말한다. 사랑하라. 경제적 불평등이, 신분의 차이가 대수냐. 그러나 현대의 낭만적 서사에서 남자주인공의 경제력과 여자 주인공의 성적 매력은 당당하게 교환됨으로서 경제활동에 관한 성차별은 은폐되거나 정당화된다. 결국 결혼은 교환경제의 일부여서 교환경제가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사랑을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그녀가 직장에 다닐 때 그녀의 유니폼은 나에게 성적 매력을 환기하는 기호였으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그것이 경제적 기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나는 새삼 깨달았다. 우려한 대로 유니폼을 입지 않은 그녀의 매력은 급격히 시들어갔다. 나는 입시학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직금을 정기신탁에 묶어두었고 시간 강사료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다.(118)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은 연인과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화자의 분석이 많은 부분 서사화되었다. 화자는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려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 역시 단순히 사적 관계, 개인의 책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랑을 통제하는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 사실은 계급적 요구에 기대있으며 공적 영역의 변화는 친밀성에 기반한 사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경욱의 「낭만적 서사와 그 적

15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찾고 싶어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었다. 육체적 관계를 통해 그녀의 사랑을 확인하려 할수록 나는 자괴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치열교정기는 그녀의 육체가 갖고 있는 물질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무엇으로 전락시켰다. 전락해서 관계는 '자동화'되었고 영혼은 '소외'되었다.(108)

들」은 친밀성의 실패 경험을 성찰하는 화자의 목소리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사랑을 탈낭만화함으로써 관계의 본질을 해부한다. 그리고 이는 2000년대 남성의 사랑법이 지닌 특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낭만적 사랑을 탈낭만화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성 문학에서 많이 이뤄진 작업이었다. 특히, 1990년대 여성 문학이 재현한 여성에게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와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자 가부장제로부터 일탈을 감행하게 하는 열정적 욕망이고 고통의 원인이었다. 낭만적 사랑이 여성에게 억압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1990년대의 여성들은 사랑의 주변에서 고통받는다. 하지만 2000년대 문학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과거에 비해 무겁지 않다. 사랑과 성에 대한 여성 억압적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를 경험하는 여성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여성의 사랑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2002년에 발표한 정이현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이전의 문법과는 다른 여성의 연애 서사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보다 2년 먼저 나온 작품이지만 사랑과 성을 둘러싼 달라진 세태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진 작품[16]이다. 특히, 2000년대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꼽히는데 경제적 호황기에 태어나 서울이 고향인 젊은 여성 인물을 통해 2000년대 젊은 여성의 중산층의식이 지닌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주인공 유리는 자신의 여성성을 자본화하여 상승혼을 통해 자본주의적 욕망 충족을 목표로 삼는다. 여성의 순결성이 여성 자신

16 이광호,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새로운 여성 화법과 불온한 도발」,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3, 225-249쪽.
강유정, 「악녀, 화장을 지우다-정이현론」, 『문학과 사회』 제75호, 문학과지성사, 2006, 303- 317쪽.
이경진, 「속물들의 윤리학-정이현론」, 『창작과 비평』 제142호, 창비, 2008, 417-436쪽.
박선경, 「페미니즘 이론과 문학에서의 '여성성' 변이와 증식 과정-정이현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語文學』 제121호, 한국어문학회, 2013, 269-301쪽.
강지희, 「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연구-배수아와 정이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41-68쪽.
김은하, 「파국의 사회와 나쁜 여자의 귀환-정이현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제14권 1호, 도시인문학연구소, 2021, 113-137쪽.

의 가치를 높인다고 판단하여 주인공은 오래된 누런 팬티를 입으며 이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애쓰며 혼전 순결을 지켜낸다. 자신의 순결성을 결혼을 위한 교환가치로 여기며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발적으로 억압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 하기 어렵다. 그녀의 부모는 딸들에게 여성의 성은 유리 같은 것이라며 한 번 금이 가면 가치가 없음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는 딸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유리의 엄마야말로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경우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유리는 엄마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자기관리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 여긴다. 유리가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경영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자신의 힘으로 계층 상승을 향한 자기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 어차피 출발선이 다른 게임이었다. 내가 조그만 무역회사의 여사무원이 되어 나이 들어가거나, 물간 생선회와 식은 LA갈비찜이 포함된 싸구려 뷔페를 피로연으로 결혼식을 올릴 때, 혜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밀라노에서 패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오십평짜리 빌라트에 신혼 살림을 차릴 수도 있었다. 나는, 나는 다르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척박한 세상과 맞서야 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17]

호황이 끝나고 충격적인 국가 부도와 이로 인한 세계체제로의 강제적 편입, 그리고 그 결과 이어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장기 저성장 사회로의 이행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를 낳았다.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산업화 이후 처음 등장하고 청년 세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실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배제에 따른 공포를 겪었다. 국가적 기획물로서의 '평범한 가정'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퇴조하고 전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과 공동체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됐다. 위의 인용문은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주인공 유리는 자신을 도와줄 타인이나 사회를 떠올리지 못한 채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세상과 맞서야 한다고 말한

17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3, 25쪽.

다. 이는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돈에 대한 노골적 욕망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의 핵심이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적 소유를 통해 개인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보편화 되었다. 속물은 항상 존재했지만, 2000년대에는 속물성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며, 물질적 소유와 계층 상승을 목표로 하는 윤리가 합리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의 유리 역시, 자신의 미래는 작은 무역회사의 '여'사무원이 되는 것 이상일 수 없다고 한다. 이미 계급적 토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어 계층 상승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자신의 여성성을 자본화하여 교환가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유리가 자신의 미래를 작은 무역회사의 여사무원으로 상상하는 것은 유리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젊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의 문제이며 공적 영역의 조건이 한 개인의 상상력을 제한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 서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유리에게 이데올로기의 바깥은 없다. 유리가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취약하다는 의미이고, 그녀는 스스로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자기 경영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섹슈얼리티나 감정 등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리는 체제순응적 방식으로 속물성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신을 자본화한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본이 되어야 할 여성성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 나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움직일 때마다 골반 전체가 뻐근하게 쑤셔온다. 그에게 왠지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제 곧 나의 흔적을 확인한다면 틀림없이 그도 기뻐할 것이다. 나는 조심스레 이불을 들친다. 그런데.
>
> 아무것도 없다! 타월 위에는 한 점의 핏자국도 남아 있지 않다. 아무리 봐도 순백의 시트 위는 깨끗하다. 머릿속이 온통 까매지고 정신이 아뜩해져온다.[18]

유리의 철저한 노력과 영악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로서 순결성은 첫 성

18 위의 책, 33쪽.

관계 후 혈흔이 생기지 않으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다. 유리는 자본화한 혼전 순결로 대표되는 여성성이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 거래는 애초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을지 모른다. 정이현은 신자유주의적 에토스를 가치관으로 체화하여 순응하는 원자적 개인인 여성이 '여성성'을 위장하고 연기하는 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이현의 또 다른 단편소설 「트렁크」에서도 소비를 통한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완벽한 화장과 다이어트로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출세를 위해서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하고자 그를 유혹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자본화하여 자기 경영함으로써 자신을 자본화하고 교환가치로서 활용한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은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다.

> 첫 직장은 성형외과 병원이었다. 대학 취업 보도실에 붙은 공문은 대개 군필을 명기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중학생 보습학원의 시간 강사 자리가 다였다. 병원 면접을 보던 날 압구정동에 처음 가보았다.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은 원장 사모였다. 자연산인데 라인이 참 깔끔하게 떨어졌네. 토익이나 워드 자격증이 아니라 쌍꺼풀 때문에 직장을 얻게 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었지만 어쨌든 당시엔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했다.[19]

경제위기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온 것은 아니다. 가족이데올로기는 여성의 해고를 더 쉽게 만들었고 여성의 노동력을 먼저 프레카리아트로 만들었다. 이런 젠더 불평등한 노동시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 여성이 남성과 같은 조건일 수 없음을 말한다. 이런 사회에서 「트렁크」의 주인공이 첫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직무능력이 아닌 쌍꺼풀 때문이었다. '자연산'이라는 횟감에 쓸법한 표현으로 사람의 육체를 부분으로 나눠 물화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이는 무척 상징적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위장하거나, 스스

19 정이현, 「트렁크」,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3, 47쪽.

로를 물화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신자유주의 에토스에 따른 여성의 자본화는 자본화되어 체제순응적인 '여성성'을 연기하지 않고서는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편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여성성의 위장은 이미 실패의 전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정이현은 초기 단편소설들을 통해 보여준다.

3 젠더화된 속물성과 또 다른 여성 타자의 발견

2000년대 사회는 경쟁의 원리를 수용하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물성이 일반화된 시기이다. 그리고 2000년대의 속물성은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된장녀' 담론처럼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자본화된 여성을 공격함으로써 타자를 배제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에토스의 일반화는 이러한 현상을 확대 재생산했다. 젊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적 실천에 대한 반감은, 더 많은 자율성과 주체적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 중심 사회의 공격적 대응이었다.[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여성혐오와 젠더 갈등은 젠더화된 속물, 속물의 마녀화로 드러났다.

김경욱의 「낭만적 서사와 그 적들」에서 아내는 과거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페르난도 서커스단의 라라 양」[21]에서 여성 인물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22] 말하는 인물이지만 두 작품의 여성 인물은 모두 결혼과 동시에 생계를 남편에게 의지하여 직장을 과감하게 버린다. 이에 남성 화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때 여성은 알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맥락이 나타나지 않으니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독립성과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하던 여성이 가부장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그 이유를 묻지 않은 채 경제적 부담감과 여성에 대한 실망을

20 강유정, 앞의 논문, 303-317쪽.

21 김경욱, 「페르난도 서커스단의 라라 양」, 『2004 현장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 2004, 217-245쪽.

22 위의 책, 220쪽.

표현하는 남성 인물들은 독립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의탁하는 모순적 여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렇듯 200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조건,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강화된 여성혐오적 문화라는 담론적 조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2000년대 문학의 배경을 형성한다.

1990년대 여성 문학이 보여준 여성 내면의 목소리가 희미해진 이유는 바로 이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있다. 대타자가 사라진 시대에 여성의 목소리, 여성성의 복원이라는 문학적 도전은 그 자체로 저항적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하진은 작품 속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질서의 완고함과 그 규율에 순응하고픈 착한 딸의 서사를 통해 2000년대 이데올로기 지형의 복잡성,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드러낸다. 서하진의 「뱃전에서」에 나오는 아버지는 딸의 방황과 괴로움에 "오래…걸렸다. 그만하면, 마, 니도 할 만큼 했다."[23]라며 제자리를 지킬 것을 조언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질서에 결국 순응함으로써 착한 딸이 되는데, 이는 「낯선 방」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정사로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내며 "나는 착한 여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다. 다시는 그런 꿈 따위는 꾸고 싶지 않았다."[24]고 말하지만, 딸은 결국 "대개의 아버지가 그렇듯 아버지는 항상 옳은 말씀만 하셨다."[25]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질서에 순응한다. 서하진의 작품 속에 딸은 김경욱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라고 말한 것처럼 주체적인 삶과 자율성을 원했지만 강력한 아버지의 질서 밖을 상상할 수 없어서 순응하는 착한 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0년대에 와서 이와 같은 여성성의 재현은 순응에 대한 변명이 될 뿐, 여성 억압적 현실이 만들어내는 폭력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김경욱의 작품 속 여성 인물과 서하진은 모두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존재로서 아버지의 질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에도 불구하고 반항의 실패나 포기로 체제에 순응한 여성 인물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980년대라는 대타자가 사라진 2000년대 여성 문학은 여성 억압적 현실과 여성 혐오적 담론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문제화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위

23 서하진, 「뱃전에서」, 『비밀』, 문학과지성사, 2004, 34쪽.
24 위의 책, 175쪽.
25 위의 책, 236쪽.

해서는 내면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적 도전을 모색해야 했다.

> 여자의 이름은 W였다. W는 내게 몸에 난 수많은 멍을 보여주었다. 하루에 수십 번 사람들과 부딪쳐요. 가만히 서 있는 내 발을 밟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미안합니다. 못봤어요. 정말 사람들 눈에는 제가 잘 안보이나봐요.[26]

아버지의 질서에 저항하여 여성을 인간에 미달하게 하는 물화/자본화에 맞서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작품으로 윤성희의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를 들 수 있다. 인용문에서 W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노동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성은 또 다른 여성들에게 발견된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여성들은 혈연 없이 가족을 이뤄 새로운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소유물을 사고하고 사용가치를 다한 물건들을 버림으로써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는 다른 윤리이다. 윤성희의 작품을 통해 2000년대 여성 문학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젠더가 작동하는 조건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배제된 여성의 서사적 복권, 그리고 파편화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정이현의 「트렁크」 속 주인공은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회사 아르바이트생 선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왜 그녀가 죽은 채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는지 그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트렁크」는 자기 경영에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소녀의 죽음은 이 시대 누가 배제되었고 이 시대의 타자성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준다. 차장인 주인공은 커피 심부름 정도도 힘들어하면서 "외근 핑계로 개인적인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아이 유치원의 재롱잔치에 참석하기까지"하는 여성 직원들을 경멸한다. 그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업무분담의 부당함에 대한 맥

26 윤성희,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2005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현대문학, 2004, 20쪽.

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맹성의 시선에서 체제 내화 된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직원들의 태도를 평가한다. 하지만 경멸의 대상에서도 소외된 회사 아르바이트생 선미는 컬러 프린터나 복사기처럼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는 소녀였다. 그녀는 평소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가 아닌 사물과도 같이 물화 된 존재였다. 주인공 역시 그녀를 의식한 적이 없다가 피하고 싶은 상사로부터 다급히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그녀를 이용하면서 그녀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알게 된 소녀 선미는 꿈도 희망도 없었던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이의 나를 상기시켰다. 존재감 없는 소녀 선미에게서 주인공은 과거 자신의 어린 모습을 겹쳐 보게 되는 것이다.

> 어딘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작고 캄캄한 공간에서 사지를 웅크리고 잠들고 싶었다. 아기집 같은 동굴 속! 비로소 그녀는 모든 비밀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그날, 어쩌면 선미도 그녀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안온하고 조용한 곳을 찾다가 제 손으로 트렁크 덮개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곤한 잠을 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왠지 마음이 푸근해졌다.[27]

처음 트렁크에서 죽은 선미를 발견하고선 주인공은 사람들을 설득할만한 알리바이가 자신에게 없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걸림돌을 치우자는 현실적 판단을 빠르게 내린다. 그녀가 왜 죽었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의 처리와 해결이었다. 하지만 선미를 함께 매장하기 위해 부른 '권'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자 그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를 살해한다. '권'의 시신을 혼자 유기하는 주인공은 "스스로의 손으로 하지 못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해결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 그리고 스스로 지친다고 생각할 찰나 선미가 왜 트

27 정이현, 「트렁크」,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3, 61쪽.

렁크로 들어가 죽어있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한다. 고립된 개인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며 사는 삶의 고단함을 느낀 것이다. 어린 소녀의 죽음이 가진 타자성에 가닿지는 못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에토스를 내면화한 여성이 소녀의 타자성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다.

> 며칠 뒤 조간신문에는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이 실렸다.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옆면에는 한 여성명사가 기고한 특별칼럼이 있었다. 호화롭기로 소문났던 강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대한민국이 사치와 향락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나는 신문사 독자부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신문사에서는 필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독자부의 담당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가 거기 한번 와본 적이나 있대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안대요? 나는 하아하아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울음이 그칠 때까지 전화를 들고 있어 주었던 그 신문사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맙게 생각한다.[28]

삼풍백화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젊은 여성을 재현함으로써 또 다른 타자성과의 연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정이현의 「삼풍백화점」은 신자유주의의 에토스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향해 한 발 나아간다. 이 작품에서 R은 2000년대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고 배제되고 소외된, 여성의 얼굴을 한 프레카리아트이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이 도시의 중산층을 이루는 '나'는 삼풍백화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동창생 R과 젊은 날의 한 시기를 친하게 지내게 된다. 강남 한복판의 호화로운 백화점에는 소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노동하는 나이 어린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통해 확인한다. 어느 신문의 독자가 투고한 글에서 백화점 붕괴는 사치와 향락에 물든 세태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나'가 분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삼풍백화점 안에는 R과 같은 사람들이, 각자의 서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28 정이현, 「삼풍백화점」, 『문학동네』 통권 43호, 문학동네, 2005.

있었다. 신문에 기고된 글은 사건의 희생자라는 포괄적인 상징에서도 그 안에 노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R을 폭력적으로 삭제하여 사건을 납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나'는 분노하고 항의한다.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사건의 충격 앞에서, 주인공 '나'는 친구 R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싸이월드를 통해 그의 흔적을 더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력함은 단절로만 읽히지 않는다. 「트렁크」의 아르바이트생 선미에 이어 R이 등장했다는 것은, 정이현이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원자화된 개인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개별 서사를 지닌 타자의 발견은 타자화된 여성 주체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타자성의 강조에 앞서, 당대의 구체적인 여성 인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재현하려는 여성 작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페미니즘 비평의 관점에서, 2000년대 여성혐오적 담론과 성차를 지우는 경향에 맞서 여성 문학이 수행한 저항과 쇄신의 흐름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특히, 여성 내부의 이질성과 교차성을 인식하는 타자성, 곧 차이의 정치학에 기반한 타자성은 성맹적인 보편성에 기대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적 에토스가 일반화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상상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지워진 여성에서 교차하는 여성들로!

2000년대 여성 문학은 '타자성의 문학'이라 평가되기도 했지만, 그 문학적 지평에서 '여성 없는 타자성'은 종종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개인이라는 관념에 종속되었고, 그 안에서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지닌 여성들의 목소리는 은폐되거나 왜곡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대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곤경에 처했으며, 2000년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젠더 갈등의 확산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타자성의 문학'만으로는 지원진 여성을 복권하고, 여성 문학의 저항과 실천의 쇄신을 모색하는 데 상상력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는 2000년대 사회적 조건과 담론적 양상이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기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

을 이상적인 존재로 삼기에, 이 에토스는 추상적이고 몰성적인 개인, 즉 성차가 소거된 개인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은 타자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고, 동시에 속물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며,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이현을 비롯한 2000년대 여성 문학은 여성의 성차를 지우는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여성 주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성성을 자본화하는 방식의 한계와 여성의 자기 경영을 통한 계층 상승의 불가능성은 정이현이 보여주는 2000년대 여성의 현실을 잘 드러낸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여성 억압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정이현은, 초기 작품 속 여성 인물을 통해 단일하고 보편화된 여성상을 넘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소외되고 타자화된 여성의 서사를 재현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작품들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계급적, 계층적 배경이 다양한 여성들을 재현하면서 여성을 교차하는 복합적 존재로 드러낸다. 이는 여성들이 동일시될 수 없으며, 각자의 독특한 서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인식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문학의 중요한 저항적 특성으로, 여성 문학이 보여주는 '타자성'은 단일한 범주를 넘어서며,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들이 서로 교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저항의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에토스가 확산된 사회에서, 여성 내부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교차점을 드러내는 작업은 여성 주체가 고립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이를 통해 2000년대 여성 문학은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 문학이 단일한 여성상을 넘어서,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서사를 발견하고 재현하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서하진,「뱃전에서」,『비밀』, 문학과지성사, 2004.
윤성희 외,『2005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현대문학, 2004.
이승우 외,『2004 현장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 2004.
정이현,『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3.
_____,「삼풍백화점」,『문학동네』 통권 43호, 문학동네, 2005.

단행본

김학준,『보통 일베의 시대-'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월의봄, 2022, 160쪽.
장경섭,『압축된 근대성의 논리』, 문학사상, 2023, 197-241쪽.

논문

강유정,「악녀, 화장을 지우다-정이현론」,『문학과 사회』 제75호, 문학과지성사, 2006, 303 - 317쪽.
강지희,「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연구-배수아와 정이현을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41-68쪽.
김양선,「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안과 밖』 제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40-61쪽.
김영찬,「'90년대'는 없다-하나의 시론(時論), '1990년대'를 읽는 코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9-28쪽.
김예니,「199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재현의 문제: 장선우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중심으로」,『반영과 재현』 제2호, 현대영상문화연구소, 2021, 5-28쪽.
김은하,「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상허학보』 제51호, 상허학회, 2017, 15-49쪽.
_____,「파국의 사회와 나쁜 여자의 귀환-정이현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도시인문학연구』 제14권 1호, 도시인문학연구소, 2021, 113-137쪽.

김형중,「성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창비』 통권132호, 창비, 244-260쪽.
박선경,「페미니즘 이론과 문학에서의 '여성성' 변이와 증식 과정-정이현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語文學』 제121호, 한국어문학회, 2013, 269-301쪽.
박수현,「연애관의 탈낭만화-1970년대~2000년대 연애소설에 나타난 연애관의 비교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제55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104-108쪽.
소영현,「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현대문학의 연구』 제7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557-589쪽.
엄혜진,「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담론에 나타난 여성주체성과 젠더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368쪽
이경진,「속물들의 윤리학-정이현론」,『창작과 비평』 통권142권, 창비, 2008, 417-436쪽.
이광호,「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새로운 여성 화법과 불온한 도발」,『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3, 225-249쪽.
이선미,「속물(지배)사회, 허위의식, 말떼의 총질-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허위의식 서사 연구」,『한국문학논총』 제94호, 한국문학회, 2023, 267-296쪽.
이소영,「1990년대 포르노그래피 장르화를 둘러싼 페미니스트들의 정동과 그 의미」,『현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101-132쪽.

Abstract

Neoliberal Ethos and Gendered Materialism in 2000s Novels

Kim, Yaeni(Sungshin Women's University)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economic instability and survival competition caused by neoliberal restructuring strengthened the backlash against feminism, and the neoliberal form of governance emphasized the atomized individual managing themselves, thereby block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solidarity. In the 2000s, women's literature observed middle-class consciousness and materialism displayed by charac-

ters conforming to the neoliberal ethos and explored women's values regarding family, romance, and marriage. In particular, amidst misogynistic culture and the backlash against feminism, it dealt with the desires of female characters and their fear of exclusion, exploring otherness and isolation.

In Kim Kyungwook's Romantic Narratives and Their Enemies, gender equality is asserted through the banality of language and customs, but the absence of a premise regarding gender power structures leads to equality being emphasized as an abstract fairness. On the other hand, Jeong Ihyeon's Romantic Society and Society critiques the neoliberal ethos of commodifying women's sexuality. It shows that women can only integrate into society by performing "femininity," and this process, however, is bound to fail.

Thus, materialism in the 2000s takes the form of a woman, but through literary practices that resist misogynistic attacks, it is essential to focus on how materialistic women discover otherness and form solidarity with it. The discovery of otherness and the search for solidarity in 2000s women's literature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but attention to potential future changes is necessary.

Key words: Materialism, 2000s Women's Literature, Jeong Ihyeon, Otherness, Backlash.

논문제출 / 2025.03.15.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